

“조건 성립 안되는 비상계엄...위헌에 내란죄 성립 가능”

헌법학자·법조계 반응

헌법 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상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을 이뤘고 전형적인 대통령 권한 오·남용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내란죄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77조 1항) 선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제시한 중북세력, 사법부 압박 등은 헌법에 명시된 전시나 사변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이번 비상계엄은 정치적 상황을 윤 대통령이 개인·자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계엄 발동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헌법파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민병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거론하는 탄핵 상황은 전시와 사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권한

담화문 속 중북세력·사법부 압박은 헌법에 명시된 전시·사변 해당 안돼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는 위헌...헌정질서 파괴 행위 탄핵사유로 충분”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해 절차적 문제로 지적됐다. 국무회의 안건 등이 문서로 남았는지와 관계 장관들의 참석 여부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데 국무회의 참석자는 물론 국무회의를 연 사실 자체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이 해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계엄군이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같이 국회 의결을 막을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교수는 “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한 점과 국회 본회의장을 차단하려 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계엄군을 폭동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보인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은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해석이다.

현행 비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행정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수사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전남 지역 법조계에서도 같은 맥락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는 4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도 이날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못박았다.



4일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민변은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 행위”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홍현수 민변 광주지부장은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이용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정 사상 17번째 비상 계엄령

역대 주요 비상계엄선포 사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선포일	사건
이승만 1948년 10월 25일	여수·순천사건
이승만 1948년 11월 17일	4.3사건
이승만 1950년 7월 8일	6.25 전쟁
이승만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이승만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박정희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박정희 1964년 6월 3일	6.3 항쟁
박정희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박정희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최규하 1979년 10월 26일	10.26사건
45년만	*신군부, 1980년 5월 17일 계엄 확대 1981년 1월 24일 해제
윤석열 2024년 12월 3일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감액예산안 강행처리

1979년 10·26 이후 45년만

박정희, 1964년 6월 항쟁 때

전두환 12·12 반란후 전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헌정사역 17번째 계엄령을 선포했다.

현 정부 이전 대한민국의 계엄령은 이승만 정권에서 9번, 박정희 정권에서 3번 등 총 16번 발동됐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은 총 9차례 발령됐다.

이승만 정부가 1948년 여순항쟁시 여수·순천일대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최초 계엄령이다. 같은해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에서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여순항쟁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거법률이 없어 일본의 계엄령을 차용해 계엄을 선포했다.

법적 제도로서 계엄은 일본이 제정한 계엄령(1882년)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부터 1951년까지 3번의 비상계엄과 2번의 경비계엄이 선포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여서 우리 법령에 따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

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각 한차례씩 발동됐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은 계엄법령을 지배의 도구로 삼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 경비계엄도 발동했다. 1964년 6월 항쟁당시 박정희 정권은 서울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2년 10월 유신시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졌고, 1979년 부마항쟁 당시에는 부산·경남에 비상계엄이 내려졌다. 1979년 10·26사건 이후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고 이후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 이후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하며 후교령이 내려지자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한 것이 광주 5·18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최근의 사례로는 촛불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선포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계엄령(문건)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김수용 “서울의 겨울” 김기천 “부역질 하지마라”

연예계 반응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 연예인들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소신을 밝히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그맨 김수용은 4일 인스타그램에 “12월 12일 ‘서울의 겨울’이라며 ‘독방은 추울텐데’라고 적고 설원을 배경으로 한 풍경을 올렸다. 김수용 글에는 동료 개그맨 김영철이 ‘하트’를 눌러 동조 의사를 표시했다.

배우 김지우는 4일 자신의 SNS에 “살다 살다 계엄령을 직접 겪어 보다니. 계엄군이 국회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다니. 이게 무슨”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계엄군을 맞히는 게 아니다”라며 “저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무슨 죄인가, 나보다도 한참 어린 청년들이 텐데, 그저 현장에 출동 명령으로 투입되어야만 하는 군인들도 나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안타까울 뿐”이라고 언급했다.

배우 이윤지는 ‘계엄사태’에 대해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윤지는 SNS에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귀하게 얻은 아침. 눈물을 꼭 잡고 버틴 밤”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방송인 김나영은 황망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아이에게 할 말이 없다”는 글과 아울러 풍경 사진을 게재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당

황스러운 반응과 아울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배우 김기천은 보다 직접적인 문구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계엄령 선포 직후 X(구 트위터)에 “역사에 기록된다. 부역질 하지마라”는 글을 남겼고, 글이 커뮤니티 등에 확산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배우 박호선은 어이없는 상황이 마치 80년대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중북국가세력, 중북, 서울역 노숙자분들도 안다. 북한이 어먼지. 누가 거길 쫓는다는 건지”라며 “집권자와 대치하면 중북몰이하던 1980년대 상황에,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가수 이승환은 4일 새벽 인스타그램에 “12월 4일 5일 ‘흑백영화처럼’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연 취소에 따라 티켓은 전액 100% 환불 처리될 예정이며 자세한 절차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 공지했다.

이어 오전 4시 30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 해제를 밝히자 이승환은 “‘흑백영화처럼’은 예정대로 진행토록 하겠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할 말 많은 오늘 더 깊고 깊은 사연과 노래로 만나 뵙겠다”고 재공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